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중앙	□ 윤 대통령, APEC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도입 확대해야” . . . 미래 번영기금 설립 제안(2024.11.17) -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의 무탄소 에너지 도입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언급. 한국은 무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과 국제표준 수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힘 - 또한 APEC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번영기금' 설립을 제안하며, 지역 청년들의 교류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 - 윤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
	지방	□ 두산밥캣, 광양시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 MOU... “수소모빌리티 저변 확대”(2024.11.14) - 두산밥캣은 광양시, 한국로지스폴과 협력하여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 및 광양 수소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 협약은 광양시의 인프라 구축, 두산밥캣의 수소 지게차 공급, 한국로지스폴의 물류센터 운영을 포함 - 광양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 수소 지게차를 도입하고 임대 서비스 개발. 또한, 국내 최초로 수소 지게차 상용화에 성공한 두산밥캣은 규제 개혁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확장 추진 - 두산밥캣 관계자는 광양 수소도시 사업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표명
		□ 울산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청사진 공개(2024.11.14) -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설계 공모 결과 발표 - 당선작은 친환경 수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입면 디자인과 공간 효율성을 갖춘 ‘스펙트럼 레이어’ 입 - 안전인증센터는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수소 노출 시험실, 연료전지 시험실 등을 포함한 연구·시험동으로 구성되며, 약 468억 원의 예산 투입 - 울산시는 해당 센터가 수소전기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부안군, 수소경제로 미래 산업 지형 바꾼다(2024.11.15) - 전북 부안군은 수소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연구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청정 수소에너지 자립지역으로 도약을 목표로 설정 - 부안군은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청소차 실증 등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소경제 플랫폼 구축 가속화 추진 - 권익현 부안군수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표명
		□ 보은군 수소전기자동차 30대→19대로 보급 축소(2024.11.17) - 보은군은 당초 계획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30대에서 19대로 줄이고, 대신 일반 버스인 고상버스 1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함. 이번 조정은 예산 한도 내에서의 정책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실정 -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승용차)와 유니버스(고상버스)로, 고상버스는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 - 군은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 보급 대상을 선정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
		□ 액화수소 핵심기업 생태계 선점 '수소혁신허브 동해' 입지(2024.11.18) - 동해시는 수소특화단지와 저탄소 녹색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과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통해 세제 혜택, 규제 특례, 투자보조금 등을 제공받아 관련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 가속화 추진 - 동해시는 청정 수소생산 및 저장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
		□ [이제는 지방시대] 이차전지·바이오·수소 3관왕... 포항 '신산업 특화도시' 도약(2024.11.18) - 포항시는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미래 신산업 중심도시로 부상. - 수소특화단지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 단기적으로 2028년까지 기업 입주 공간과 시험·평가 시설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도 집중 - 시는 2035년까지 수소기업 70곳 유치, 1조 원 매출, 1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3대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밀양서 내일 착공(2024.11.18) - 밀양시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총 466억 원을 투입해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착공을 시작 - 이 센터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조성 - 센터는 연구동과 시험동을 포함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 관련 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험 평가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 경남테크노파크와 한국재료연구원이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 국내 수소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수소에 이어 게임산업까지... 울산시, 미래먹거리 발굴 위해 잔걸음(2024.11.18) - 울산시는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다각화를 목표로 해외 파트너십 구축에 나섬. 미국 디지펜 공과대학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게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수소산업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해외 파견을 통해 울산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 다각화에 기여할 방침 □ 기경위,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당진화력 방문” [충남도의회](2024.11.18)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그린수소 수전해센터와 당진화력본부를 방문하여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 - 위원회는 수전해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 - 위원들은 수소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남이 청정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 기틀" (2024.11.18)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당진시 그린수소 수전해센터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방문하여,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점검과 지원책 논의를 진행 - 위원회는 청정 수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돕는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기술력 강화 및 지역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강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안종혁 위원장은 수전해센터가 충남도의 에너지 산업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협력을 약속
		□ “제주도 그린수소생산 기지, UAM 상용화 의지 있나?”(2024.11.18) - 제주도의회는 그린수소 생산 기지 및 관광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주도의 정책 의지를 점검함. 일부 의원은 제주도의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 -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과 수소경제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 - 김승준 의원은 그린수소 및 UAM 사업이 제주도의 미래 에너지와 신성장 산업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촉구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활성화 총력전...국토부 회의 참석(2024.11.19) - 울진군은 국토교통부 회의에 참석하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문화융합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 - 산단의 조기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 - 국토부는 울진과 고흥의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산단 활성화 관련 주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 - 울진군은 원자력과 수소를 융합한 국가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통접근성 및 문화공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
		□ 전주시 송천동에 5번째 ‘효성 전주호남액화수소충전소’ 준공(2024.11.19) - 전주시 송천동에 다섯 번째 수소충전소인 ‘효성 전주호남액화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으며,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함. 충전소는 하루 130대의 수소 시내버스 충전이 가능 - 총 150억 원이 투입된 이 충전소는 국비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었으며, 수소 판매 가격은 1kg당 1만1,000원으로 책정 - 전주시는 북부권 시민과 완주·익산 방면의 수소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우범기 전주시장은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세계 최초 탄소제로 아파트 울산 '꿈의 수소도시' 성큼(2024.11.19) - 울산시는 북구 울동지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를 통해 난방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세계 최초의 탄소제로 아파트를 조성 - 발전소는 울산산단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며, 발생한 열은 437가구에 온수 및 난방으로 사용됨. 도시가스는 비상용으로만 사용하며, 난방비를 기존 대비 70% 절감 가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울산시는 수소 배관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수소충전소와 도시철도 1호선 수소트램 등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최초의 원전 기반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UAM	중앙	□ 서비스업 성장동력화에 66조 지원..."데이터·UAM 등 기술 서비스산업 육성"(2024.11.14) - 정부는 향후 5년간 66조 원 규모의 금융을 통해 서비스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데이터 및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산·조선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실정 - 주요 정책으로는 의료·통신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과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사업이 포함 - 숙박업 규제 완화와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가 높은 분야의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며, 'XaaS' 모델 도입 및 R&D, 디자인 서비스 확대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특별법도 추진 - 서비스 수출을 위해 기술 서비스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AI 및 클라우드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이를 통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설정
	지방	□ 김포시, 대외적 소통·협력으로 지역숙원 해소·울릉도·UAM 등 선점(2024.11.18) -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울릉도와의 교류 협약 등 대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UAM 협약과 같은 미래 성장 요인을 선점하는 데 주력 -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지구 지정, 환경재생 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으며, 자율성과 상생의 조화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 - 울릉공항 완공에 맞춘 협력 및 지역상생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친선결연 도시들과의 협력을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음
우주	중앙	- (해당 없음)
	지방	□ 국회 간 경남도지사, 우주항공특별법 조속처리 촉구(2024.11.14) - 경남도지사 박완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남해안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와 입법 지원을 요청 - 박 지사는 정부의 특별회계 설치 및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 - 그는 사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 환경을 포함한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올랜도와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모델을 참고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 또한,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특별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박 지사는 국토교통부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요청.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경남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우주를 향한 진심…보령, 계열사 통해 1750억원 확보한 이유는?(2024.11.14) - 보령은 17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우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이를 통해 '오너 3세' 김정균 대표의 경영 승계 구도를 강화하고, 민간 우주 정거장 개발과 같은 미래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 자금은 일부 우주 헬스케어 사업과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될 예정 - 김정균 대표는 액시엄 스페이스와의 전략적 협력과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외 우주 헬스케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블랙스 스페이스 설립을 비롯해 우주 의학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류의 장기 우주 체류를 목표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추진 - 보령은 우주산업 투자 외에도 그룹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며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경남이노비즈협회 서남부지부 개소..우주항공·항노화 분야 지원 강화(2024.11.14) - 경남이노비즈협회가 경남서남부지부를 개소하며 서부경남 지역의 우주항공, 항노화,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 - 이번 지부 설립으로 163개 이노비즈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지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회계, 관세, 법률 상담 등을 지원 - 지부는 481개 예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우주항공 시대를 준비하는 첨단산업 관련 지원을 확대. 이를 통해 서부경남 지역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업 간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며, 다양한 신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울 계획
		□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정원문화도시 ‘발돋움’ (2024.11.14) - 순천만국가정원이 ‘스페이스 브릿지’ 등 AI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정원으로 새롭게 변신하며,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함. 기존 아날로그 정원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 올해 재개장 이후 37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으며, ‘순천 따라 하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됨. 주요 지자체들이 정원도시 조성을 선포하며, 정원 박람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순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 - 순천시는 정원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정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다양한 AI 캐릭터와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관광 매력 창출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뮤지엄, '우수디자인(GD)'선정(2024.11.17)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안전뮤지엄이 '제40회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디자인 부문 우수 디자인(GD)으로 선정. 수소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전달하는 브랜드 시스템이 높은 평가 - 뮤지엄은 수소와 가스의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수소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 공사 측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수소 안전성 홍보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
	지방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지역혁신클러스터 수소에너지 국제 R&D 세미나' 성료(2024.11.15.) -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예산군에서 수소에너지 국제 R&D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 -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수소에너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 - 스페인 아라곤 수소재단과 네덜란드 뉴 에너지 콜리션 등 해외 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협력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무탄소 전원 전환 및 청정수소 생산 기술 등을 소개 - 충남테크노파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공동사업 발굴 및 국제 협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표명
UAM	국가기관	□ 한전기술, 스카이포츠와 UAM 버티포트 분야 업무협약 체결(2024.11.14) - 한국전력기술은 영국 UAM 전문기업 스카이포츠와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양사는 UAM 시장 조사, 현장 조사,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 한전기술은 기존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과 전력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UAM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며, 스카이포츠는 헬리포트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 표준화 추진 - 이 협력은 국내 UAM 시장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확보할 기회로 평가 □ "빅데이터로 K기업 체질 개선...6G·UAM 표준특허 선점할 것"(2024.11.18) - 특허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전략산업의 R&D 방향을 제시하고, IP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6G, 양자 기술, UAM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함. 바이오 기술 우선심사를 추가해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 - 특허청은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술 유출 방지에 앞장서며, 첨단 기술 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IP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전남TP, 방위산업육성심포지엄개최...국방·우주정책방향모색(2024.11.19) - 전남테크노파크(TP)가 순천에서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방과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방향을 논의 - 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세계 4위 방산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춘 논의가 진행 - 심포지엄에서는 국방·우주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전남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 국가 우주정책 방향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짐. 특히, 순천과 고흥 지역의 방산 및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 - 전남TP는 전남의 강점을 활용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전남이 방산 및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 민간 및 기타(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 새 먹거리 키우는 포스코, 이차전지·수소 등에 73조 쏟는다(2024.11.18) - 포스코는 철강,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핵심 산업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의 투자 계획 발표 -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리튬·니켈 생산설비 확장 및 양극재 생산설비 증설로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블루수소 생산 사업에도 1조 원을 투자할 예정 - 정부는 포스코의 신속한 투자와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행정 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계획 실행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표명
		□ 포스코그룹, 광양시와 '이차전지·수소·로봇'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2024.11.18) - 포스코그룹은 광양시와 협력해 오는 26일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개최 - 이 행사는 이차전지, 수소, 로봇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컨퍼런스는 기술 전시, 비즈니스 상담, 투자 협의, 창업 활성화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관련 기업과 투자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 - 행사에는 포스코 계열사를 비롯한 대기업과 투자사가 참여하여 기술 협력 및 사업 기회를 논의하며,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현대차-전라북도, '수소 생태계 조성' 협력 강화한다(2024.11.19) - 현대자동차와 전라북도는 수소산업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수소충전소 구축, 청정수소 생산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 기술 개발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삼고 있는 실정 - 현대차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청정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소 기반 특장차 및 지게차 보급 확대를 도모. 이와 함께 도청 내 수소충전소를 2026년까지 착공할 계획임. -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
	대학교	□ "수소산업 키운다"... 우석대 원주수소연구원, 자문위원 17명 위촉(2024.11.14)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원주수소연구원이 지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 17명을 위촉 - 자문위원들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인재 양성, 연구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원주수소연구원은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의 수소에너지 활용 및 연구개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 - 원주수소연구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수소에너지고등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2024.11.14) - 전주대학교는 수소에너지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북 지역 수소에너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 졸업생들의 진로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약속 - 협약 내용에는 전주대 내 수소 및 2차 전지 관련 학과로의 진학, 장학금 혜택 제공, 추가 학습 경험 인정 등이 포함 -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및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 - 전주대는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융합 학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해외	□ KIC중국, 수소산업 10개 업체와 광저우 IR행사(2024.11.18) -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웨강아오 대만구 과학포럼'에 한국의 수소산업 관련 10개 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IR 행사를 개최 - 포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KIC중국은 광둥성 과학기술관리연구회와 MOU를 체결 - 이번 행사는 양국의 혁신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한국 수소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기타	기타	□ 내년부터 석탄화력 대거 폐기... “그린수소 허브 전환 獨 모델 주목해야” (2024.11.17) - 한국은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절차를 시작하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허브 조성을 검토 중임. 독일 함부르크의 사례는 성공적인 전환 모델로 주목 - 함부르크 그린수소허브는 폐쇄된 발전소 부지를 활용해 연간 1만 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하며, 주변 산업과 물류에 수소를 공급 -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정의로운 전환 방식 검토 - 전문가들은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와 인프라 활용 방안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 우주선·로봇·UAM...LG엔솔, 비전기차 미래용 배터리사업 확대(2024.11.19) - LG에너지솔루션은 비(非)전기차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우주선, 로봇, UAM 등에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매출 증대를 모색 - 실리콘밸리 로봇기업과의 배터리 공급 협력, 스페이스X 우주선에 전력 공급 배터리 제공 등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 강화 - 향후 우주와 로봇 산업의 초기 단계 시장을 선점하며, 배터리 기술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UAM	기타	기타 - (해당 없음)
우주	민간기업	□ "방산·항공·우주 제대로 키워보자"...김승연 장남의 도우미로 전격 등판(2024.11.15)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을 새로 맡으며, 우주와 방산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을 강화 -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방산과 우주항공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 - 김 회장은 우주·방산 핵심 계열사에서 경영 보폭을 넓히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대 정책에 따른 대미 방산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 기업과 협력 가능성도 확대될 전망 - 재계는 김 회장의 미국 정계 인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우주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아이엘사이언스, 호라이즌아이엠 설립 "모빌리티·우주항공 투자"(2024.11.15) - 아이엘사이언스가 신기술투자사 호라이즌아이엠을 설립하며 모빌리티 및 우주항공 분야 유망기업 투자에 나섬. 이번 설립으로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함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역할 강화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회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인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 -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 전고체배터리와 통신 기술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 - 아이엘사이언스는 이번 신기술투자사 설립을 통해 그룹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및 우주항공 전문 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MNC솔루션 “방산 우주항공서 쌓은 역량 바탕으로 글로벌 모션컨트롤 선도기업 될 것” (2024.11.17) - MNC솔루션은 방산과 우주항공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모션컨트롤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 - K-방산 성장에 따라 방산 부문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 발사체용 구동 장치 등 첨단 기술 개발 확대 - 회사는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며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음.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 시스템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 취득 - MNC솔루션은 민수용 모션컨트롤 시장으로의 진출도 계획 중이며, 방산 및 민수 시장 모두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신규 공장과 연구개발 센터를 건설할 예정
		□ "우주선에서 자율주행로봇까지"... LG엔솔, 원통형 배터리로 신사업 확대 (2024.11.18) - LG에너지솔루션이 자율주행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한 비(非) 전기차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서비스 및 물류용 자율주행로봇에 적용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 회사는 우주선 배터리 시장에서도 스페이스X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서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 - 이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제품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가속화 추진 -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과 선박, 우주항공'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설정. 이로써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 예정
	대학교	□ 국립부경대, 국토 우주지질 연구·재해대응 프로젝트 나서(2024.11.15) - 국립부경대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력하여 국토와 우주 지질 연구 및 지질재해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 -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질 연구, 재해 예방 기술 고도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예정 - 이번 협약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체결되었으며, 우주와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학문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지질재해 대응 기술과 우주 관련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 - 국립부경대는 기초과학 연구와 환경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지속하며, 우주 및 지구환경 관련 융복합 연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확대할 예정임.
	해외	□ 중국 화물우주선 텐저우 8호 발사...달 기지 건설 첫발(2024.11.16) - 중국이 화물우주선 텐저우 8호 발사에 성공하며,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음. 우주선은 발사 약 10분 만에 궤도에 진입하여 우주정거장 텐궁과 도킹을 준비 중이며, 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 샘플도 운반 - 중국 과학자들은 달 토양을 활용하여 달 기지 건축 자재를 개발하는 실험을 진행 - 이는 우주 방사선과 극한 온도 변화 등을 견딜 수 있는 기지를 저비용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표명 - 중국은 2035년까지 달 남극 지역에 연구 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우주정거장 텐궁을 기반으로 우주 탐사 및 기지 건설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
	기타	□ 한국우주안보학회-광장, '우주산업 발전 모색' 세미나 성료(2024.11.14) -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 - 세미나는 정부 관계자, 학계, 기업 등 80여 명이 참여하여 우주산업과 안보의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며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 - 첫 세션에서는 우주산업의 법률적 문제와 분쟁 사례를 발표하며, 우주 쓰레기 처리와 우주광물 채굴 관련 기술과 법적 과제를 강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향을 제시. 마지막 세션에서는 우주 규범 체계와 국제 우주법을 중심으로 국내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 - 패널 토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우주 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와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향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 □ 제노코, 3분기 수주잔고 1051억 돌파..."우주산업 도약 가속"(2024.11.15) - 제노코는 3분기 수주잔고 1051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2% 증가를 기록. - 이는 정부 주도 사업과 항공우주 부문 주요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한 결과이며,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회사는 국내 최초 혼선방지기(IBU) 국산화에 성공하며, 위성 통신장비 및 항공전자부품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공급함. 최근 미국 방산기업과의 MOU 체결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입지 확대 - 제노코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우주 및 방산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에 주력할 예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위성통신 산업 '선택과 집중'...우주개발, 민간주도로 전환"(2024.11.19) - 한국의 우주 예산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가운데, 위성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 제시 - 한국은 위성체와 발사체 핵심 기술이 미국 대비 약 55~65% 수준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필요 - 전문가들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위성 단말기와 관제 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대용량 위성영상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을 고도화 추진 필요 -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는 우주 예산 확대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지원을 강화 필요 - 이를 통해 한국은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끝-